

었다.

5) 계절별 의무실 이용률은 여름(27.75%)에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을(26.30%), 봄(25.51%), 겨울(20.44%)의 순위였다.

2. 의무실 이용자들의 증상 분포를 보면 외상(40.69%)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화 불량(23.00%), 감기(13.08%), 두통(7.45%)의 순위였다.

3. 외상(화상, 골절 포함)의 종류별 분포를 보면 화상(84.75%)이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열상(5.28%), 타박상(4.71%), 절상(3.82%), 찰과상(1.39%), 골절(0.05%)의 순위였으며 사무부 생산부 모두 화상(사무부-11.50%, 생산부-73.25%)이 가장 높았다.

4. 화상의 부위별 분포를 보면 상지(57.23%)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하지(33.15%) 안면 두부(6.84%)이며, 몸체(2.78%)가 가장 낮았다.

5. 의무실에서 행해지는 처치상황을 보면 투약(59.33%)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적인 처치(40.14%), 병원에 입원(0.27%), 통원(0.26%)의 순위였다.

6. 의무실에서 투여되는 약물은 진통제(analgesics -39.9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화제(digestives -39.19%), 제산제(antiacids -7.81%) 지사제(obstipatia -6.75%), 항생제(antibiotics -5.58%),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s -0.71%)의 순위였다. 부서별로 볼 때 사무부는 소화제(42.55%), 생산부에서는 진통제(41.33%)가 가장 많이 투여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1) 세분화된 과별로 의무실 이용률을 조사해보며 전년도와 비교할 것을 제언한다.

2) 다른 의무실과 비교해 보며 건강관리자와 보건관리 요원이 있는 의무실과 보건관리요원만이 있는 의무실을 비교 연구하여 산업보건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일부 산업보건간호원의 사기에 관한 연구

중앙의대 잡지, 제4권 제1호, 1979.

정 연 강

1979년 3월에서 4월까지 전국에서 무의 차출된 피교육 산업보건간호업무에 종사하는 30명(간호원자격소지자 10명, 인문고졸업 15명, 일반대학졸업자 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산업보건간호원의 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내용별로 볼 때 직무부담량(56.7%), 보수면(66.7%), 여가면(56.7%), 창의적능력발휘도(60%), 건강유지(66.7%), 사회적 지위(56.7%)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상급자와의 인간관계(60%), 직무만족도(63.4%) 및 학교교육과 실제 활용도(53.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운영(50%), 동료와의 인간관계(50%) 및 인사행정(50%)은 긍정과 부정반응에 차이가 없었다.

국민보건과 국가발전을 위하여는 직장인들의 건강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의 관심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은 생산과 관련되며 좋지 못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결근이나 능률저하로 계획된 생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활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산업보건간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보건간호원들에 대한 전문적 행정계열, 행정적 협조와 향상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업보건간호원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욕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산업보건사업의 목적을 보다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산업보건간호사업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제시코져 한다.

서울시내 산업장 건강관리 현황 및 보건 간호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국립보건연구원 제17권, 1980.

박노예 · 김태숙

본 연구는 산업장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요원의 업무 현황을 고찰해 봄으로써 산업장 근로인구의 건강요구 측정과 이에 대한 현행 관리의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져 서울시내 의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151개 산업체중 50%를 무작위 추출하여 75개 산업체 의무실에 근무하는 보건관리 요원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문지를 개발하여 이를 연구대상 산업체 의무실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회신을 받아 연구 대상자의 특성, 산업체 종류별 건강관리, 보건관리 요원별 업무 현황을 근거로 전산 처리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대상 업체 의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관리요원의 연령은 20~29세가 71%로 가장 많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68%이었다. 보건관리요원의 면허소지상태는 간호보조원이 19%, 간호원이 45%, 기타 무자격요원이 36%로 나타나 1/3이상이 무자격 요원에 의해서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의무실의 구성원을 보면 간호보조원이 주가 되어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14업체중 10업체는 간호보조원 이외의 어느 보건요원도 없음이 나타났으며 또한 기타 무자격요원